
	<h1>보도자료</h1>	 <b>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</b> <small>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</small>
<b>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</b>		
대전(본원): 대외협력실 이종성 042-869-0976 / 이해준 0676 / 손영주 0997 문의: 과학기술연구망센터 조부승 센터장(042-869-0584) / 이원혁 팀장(0648)		
배포번호 : 2021-35 배포일자 : 2021.10.29.(금)	매수 : 보도자료 3매 (첨부자료 포함)	배포처 : 대외협력실

## KISTI-항우연 국가 위성 지상네트워크 양자암호 기반 구축 협력

- 양자암호 기반 차세대 연구망 구축 -

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원장 김재수, 이하 KISTI)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(원장 이상률, 이하 KARI)은 10월 29일 KISTI 대전본원에서 국가 위성 지상네트워크 구축 및 차세대 연구망 기술적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했다.

양 기관은 KARI의 국가 위성 지상네트워크 구축 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KISTI의 양자암호통신망 테스트베드 구축에 협력하고 최종적으로 양자암호 기반 차세대 국가 과학기술연구망(KREONET) 기술을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.

양자암호는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안전한 통신을 위한 암호체계로, 양자 키 분배 기술이 대표적이다. 양자 키 분배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나누어 가진 암호키를 통해 기존보다 보안성이 향상된 통신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.

이러한 양자암호 기술을 이용하여 KISTI와 KARI는 양자암호통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, 위성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환경을 시험한다. 또한 제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KREONET 활용을 강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다. 관련 공동연구와 각 기관 보유 인프라 공동 활용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.

KARI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정대원 센터장은 “위성정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나, 최근 실시간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하고 빠른 전송환경이 필요하다” 며 “이번 업무협정을 통해 국가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차후 신설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 고 말했다.

KISTI 과학기술연구망센터 조부승 센터장은 “차세대 통신기술인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통해 KISTI의 KREONET이 국가 중요 연구데이터인 위성정보의 전송환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KARI와의 상호협력으로 KREONET을 통해 국가 위성데이터 활용에 적극 지원하겠다” 고 말했다.

첨부

KISTI-항우연 업무협약식 사진자료



KISTI 과학기술연구망센터 조부승 센터장(왼쪽)과  
항우연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정대원 센터장